

2023순천만국원박람회, 새로운 이정표 제시

순천시 “정원 매개로 ‘모든 이의 만남과 소통의 해방구’ 될 것”

노관규 순천시장은 “헬니스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시대,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이정표가 필요한 때”라며 “순천은 2023정원박람회를 통해 미래 도시가 따라야 할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민국에 정원문화의 싹을 틔운 2013정원박람회에 이어 10년 만에 획기적인 도시계획으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라며 야심찬 포부를 내놨다.

순천시는 그야말로 정원을 매개로 ‘모든 이의 만남과 소통의 해방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을 삶에 녹여내 ‘사람이 중심인 도시’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16년, ‘슈퍼블록’이라는 도시계획으로 블록 간 병합, 차량 통행 제한 등 사람이 존중된 도시 공간의 모델을 제시했다. 순천시 역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시 공간의 획기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정원 키즈가든의 커다란 바위

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은 꿈과 미래를 그리게 된다. 이제 어른이 된 아이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노을정원 입구 아네모네 아래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애기궁뎅이’라 불리는 봉우리 사이 붉게 지는 노을을 보면서 저절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아울러 순천 도시 전체를 헬니스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순천 곳곳을 만날 수 있는 여섯길을 조성했다.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는 순천시민들의 열정도 남다르다. 지난해 모집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는 홍보 활동과 함께 관람객 안내와 주차 안내, 통역 등을 맡는 박람회 핵심 동력이다. 또한, 116명에 달하는 SNS 서포터즈, 18명의 시민홍보단 ‘일류플래너’, 지역기업과 민간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박람회 성공을 위한 입장권 및 기부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8만 일류순천 시민들과 함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시켜 세계 유일의 생태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신안, 드림스타트 아동 책가방 지원

2023년 초등 예비 입학·졸업생 65명 대상

신안군은 2023년 초등 예비 입학 및 졸업생 65명에게 책가방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금번 책가방 지원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학기에 앞서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을 준비하는 아동에게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전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했으며, 다양한 디자인의 선호도 높은 브랜드 책가방이 선정돼 보호자와 연령별 아동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관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에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영암, 과수화상병 예방 ‘온힘’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개최...약제선정 심의



영암군은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과수화상병 방제 계획 협의와 방제약제 선정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금지병해충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국내에서는 2015년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배·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배·사과 재배 과수원 791.5ha(1607농가)에서 발생한 바 있는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확산될 경우 공적방제(매몰·폐원)를 해야 하므로 농가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재배농가의 과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군은 더욱 철저한 방제를 위해 기존 1회 방제에서 3회 방제(개화전

회, 개화기2회)로 방제체계를 변경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약제 방제는 인편이 벌어지는 시기(1차와 개화기(2차, 3차에 시기에 맞는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군은 방제대상 농업인에게 3월 상순까지 방제약제를 공급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방제대상 농가는 과원 예찰을 통해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추후 방제 확인을 위하여 살포한 빈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과원관리일지를 1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의심주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 (061)470-6608 또는 병해충신고 전국 대표번호 1833-8572로 신고할 수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강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진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강진 중앙초등학교와 강진 동초등학교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불법주·정차구역과 달리 24시간, 연중무휴 단속중이나 학생을 통학시키는 학부모,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강진군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강진 중앙초등학교와 강진 동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5분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안심승하차존이 있어, 어린이 통학 시 이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 ‘신규시책’...혁신산단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5인 이내 1인당 기숙사 임차비용 60%...최대 15만원까지

나주시가 올해부터 혁신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비 일부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나주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산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신규 시책으로 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굴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관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월세) 비용의 60%(최대 1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앞서 국·도비 매칭 유사 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지난해 일몰제로 중단됨에 따라 나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공장·부분 등록을 완료한 혁신산단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에서 직접 관내 위치한 주거시설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임차 비용은 기업 한 곳 당 근로자 5인 이내로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차비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나주=서철훈 기자

신안 하의권에 쾌속선 ‘퍼스트엔젤호’ 취항...170톤 규모

취항식 개최...200명 승선·최대 속력 26노트



신안군은 하의·신의·장산면 섬 지역에 쾌속선 퍼스트엔젤호가 17일부터 운항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유)신진해운 소속의 쾌속선 퍼스트엔젤호는 2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170t 규모로 최대속력은 26노트이다.

목포에서 장산 북강을 경유해 하의 동곡과 신의 상태리까지 70여분이 소요되며, 이후 도초 우이도선착장의 접안시설이 완료되면 우이도까지 기

항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하의권역을 운항하던 조양운수(주) 엔젤호가 지난해 6월 30일 운항을 중단한 이후 대체 운항할 면허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해 (유)신진해운을 사업자로 확정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퍼스트엔젤호 취항식은 18일 하의면 동곡선착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도·군의원, 여객선사 및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안=박정래 기자

보성 ‘헬니스 관광지’ 3회 연속 선정

‘전남권 환경성질환에방관리센터’ 건강 코치 역할 특목



보성군은 18일 ‘전남권 환경성질환에방관리센터’가 3회 연속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힐링과 건강 여행·관광 수요에 맞춰 선정·지원한다.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에방관리센터가 2019년 처음으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이후 2021년, 2023년 3회 연속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등록했다.

전남권 환경성질환에방관리센터는 제암산 자연휴양림 내 위치한 보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안내하고 최근에는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

강까지 포괄해 ‘웰니스 코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에방관리센터는 친환경 힐링 숙박 등을 비롯해 맥반석·황토찜질방, 녹차탕, 산소방, 치유명상실, 야외 족욕시설 등이 모여 있다.

‘원기회복의 집’은 식물이 분비하는 항균 물질이 많은 편백나무로 내부 마감해 건강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또한, 숙박을 하지 않아도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환경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기초검진, 친환경 음식 만들기, 천연염색 등 일상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힐링 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해 운영한다.

보성=장국도 기자

섬진강기차마을 설 연휴 이벤트 풍성

극성 섬진강기차마을이 설 연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극성군은 설 연휴 주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반짝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기차마을의 반짝이는 1월’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벤트는 마술·소원카드 달기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마술 공연은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1층에서 매일 오후 2시, 4시에 펼쳐지며 풍선아트도 관람할 수 있다. 또 잔디광장에서는 소원카드에 새해 소망을 적어 나무에 거는 이벤트도 비롯해 ‘검은토끼를 찾아라’ 미션투어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섬진강기차마을 곳곳에서는 한복을 입은 검은 토끼와 기념사진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됐던 꼬마기차와 4D영상관, VR체험관, 요술랜드, 치치뿌뿌놀이터, 생태학습관 등도 365일 개방된다.

해남매일시장 내일 전면 재개장

185억 투입 2층 재건축...70개 점포 입주

해남군은 지역의 유일한 상설시장인 해남매일시장이 20일 전면 개장하고, 설 명절 대목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월 초부터 상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부분 개장하고 있는 해남매일시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정식 개장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새롭게 문을 연 해남매일시장은 2층 신축 건물로 1층에는 58개 점포가 입점하며, 2층에는 청년몰 6개, 일반음식점 1개 등이 위치해 총 70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

기존의 농수산물과 청과류, 건어물, 분식, 통닭 상가는 물론 공예품, 화장품, 제빵제과, 공방 등 새로운 업종의 상가도 대거 입주해 한층 풍성해지고, 젊은 감각을 겸비한 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재건축을 통해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원활한 높은 천장의 비가림시설과 통일된 형태의

간판,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시장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는 최신 시설로 탈바꿈했다.

현재 절반 이상의 상가가 영업을 시작한 상태이다. 내부공사를 진행 중인 상가들도 대부분 1월말까지는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해남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한 시장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침체위기에 빠진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매일시장 개장에 맞춰 설명절 일체 장보기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1월 한달간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양, 설 연휴 소아·임산부 응급환자 진료대책 마련

광양시는 설 연휴 기간 환자 진료 공백과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소아·임산부 및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인 소아·임산부를 위해 관내 소아·여성의원 3개소를 운영하고, 비상 상황 시에는 광양소방서 119(구급상황센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지원 요청해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랑병원과 (법)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당직 병·의원 11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19개소, 보건의료기관 5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시 보건 홈페이지, SNS,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